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6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④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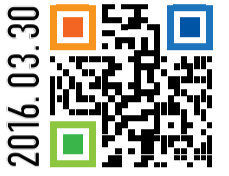
발행일 2016년 3월 30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우리들의
가장

영웅 이야기 세 번째 #환경미화원

공기와 같아서 잊고 살지만 소중한 사람들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만났다면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그분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기를...



복지는 나의 권리,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복지정책과 이혜숙 계장을 만나다

☎ 문의 : 복지정책과(031-481-2832)

글·사진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시에는 여러 계층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반저소득층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업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낸다. 생계도 해결하고, 집도 구해야 하는 위기 가정이 있을 때, 그 안에 개입해 필요한 서비스를 순서대로 넣어주는 일을 사례관리라고 한다. 복지정책과는 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관리, 자활사업, 356복지민원상담 6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포함, 총 5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작년부터 통합사례관리계를 맡고 있는 이혜숙 계장을 만나 올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동(洞) 복지허브화’사업은?

A. 첫 번째가 동 기능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에 쫓기다보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올해 시행하는 것은 먼저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시에서만 하던 사례관리도 전 동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웃을 돕는 체계도 갖추는 거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해 연결하고, 민간과 함께 보호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동 복지허브화의 큰 그림이에요. 작년까지 시범 동 4개에서 시행했고,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돼요. 복지정책과는 동을 관할하며 총괄업무도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도 하고 있어요. 사례관리에서 첫 번째는 지지예요. 정서적 지지만 해줘도 알아서 찾아가세요. 관심 가져주고, 관계 맺어주고, 누구랑 관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렇게 관계를 넓혀가는 게 동 보장협의체예요.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장, 학교 교사, 통장님 등으로 구성된 동 협의체 의원들이 동네주민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관계망들이 넓어지면서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는 거죠.

Q. 최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특성이 있다면?

A. 작년엔 780건의 사례관리 건수를 가구 특성별로 분석했는데, 1위가 한 부모 가정이었고, 2위가 의외로 청장년 1인 가구였어요. 최근 사례관리 4건 모두 고시원이나 지하방에 혼자 사시는 50대 중반 남성들이었는데, 은둔형 외톨이 비슷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한 중년 남성은 지하방에서 도배, 장판도 없이 라면박스를 깔고 생활하셨는데, 알고 보니 일회용부탄가스로 밥을 해먹다가 불이 난 거예요. 발가락 화상 때문에 병원에 오셨다가 저희와 연결됐는데, 당신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꾸 술에 의지하게 되고,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임대주택도 알려 드리고 여러 도움을 연결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일도 찾게 됐어요.

Q. 복지 서비스에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중요해졌어요.

A. 사례관리 했던 분들 중에 정신질환 문제로(중독중세 포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조사해봤는데 50퍼센트 가까이 나왔어요. 빈곤이 빈곤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흐름을 끊으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이 있어야 되요. 사례관리 케이스 중에 20년 가까이 정신질환을 앓던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몸도 건사하기 힘든 분이 요양원에 있는 치매 노모를 모셔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머니를 모셔 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분이 어머니를 씻고 닦이며, 케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사례관리사가 잘하신다고 계속 지지해드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연결했는데, 6개월 사이에 그 분 건강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근로능력 판정도 받았어요. 이런 게 성공이다 우리끼리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지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자기 역할을 찾았으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존중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Q. 안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A.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한 번씩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심을 본인에게 쏟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우선 시민들이 복지를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신다는 거 자체가 살아가려는 힘이고, 위기도가 낮아지면 아이도 잘 키우게 되고, 그게 정말 복지에산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건강했을 때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 이혜숙 계장 ▶

대부도 함초의 영양을 담은 베이커리카페 '노랑보랑'



대부도 초입 방아머리에 함초를 이용한 수제 베이커리카페 '노랑보랑'이 문을 열었다. 노출 콘크리트로 인테리어를 한 카페는 심플하면서도 아기자기해 갤러리를 연상케 한다. 천장과 벽면에 창을 내 햇빛을 들여놓은 발코니 공간에서는 소나무가 자라고, 작은 화단에 올망졸망 색색의 꽃이 심겨 있다.

함초는 '노랑보랑'이 추구하는 대부도의 자랑이자 표상이다. 염생 식물인 함초는 대부도 지천에서 자란다. 신소영 사장(55세)은 몸에 좋은 함초를 넣은 수제빵으로 대부도를 알리고자 한다. 함초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라는 한 해 살이 풀로 우리말로는 통통마디라고 부르며 전체 모양이 산호를 닮았다하여 산호초라고도 한다. 함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흡수하면서 자라는 식물이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숙변을 없애고 암, 자궁근증, 축농증, 고혈압, 저혈압, 당뇨, 기관지 천식, 갑상선 기능 저하에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초는 먹는 화장품이라 할 만큼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함초빵은 신소영 사장이 대부도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위원장인 남편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 4년여를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한식조리사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신 사장은 강화, 부안, 증도 등지를 견학하며 함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에도 단팥빵, 번, 케이크, 떡케이크 등 전문가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받았다.

함초는 대부분 나물 형태로 먹거나 엑기스나 환으로 가공해 섭취한다. '노랑보랑'은 소금 양을 줄이고 대신 함초를 넣어 빵을 만든다.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함초는 감미료를 넣은 듯 빵 본연의 맛을 더 좋게 한다. '노랑보랑'의 대표 함초빵은 동부 앙금을 넣은 '만주'로 속은 물론 겉피에도 함초를 넣어 만든다. 소보루, 낭테르, 오징어먹물 치즈식빵 등 함초 함량이 많은 빵에는 표시를 해 두었다.

'노랑보랑'의 모든 빵은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다. 발효 시간만 2주, 그 후에도 원종과 밀가루를 배합해 1주 더 시간을 둔다. 1, 2차 발효 후 바로 구워내는 수제빵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은 1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만주는 1주일간 두고 먹어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진다. 신 사장은 "함초를 빵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부도를 대표하는 지역 상품으로 알리고 싶어요. 대부도 좋은마을만들기에서는 방아머리에 함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잃어버린 간척지에서 주민이 함께 함초를 재배하고 산업화해 된장·고추장을 만들고, 함초 칼국수 등으로 관광코스도 만들어 상생하며 발전하는 대부도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2층 창가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테이블이 바처럼 놓여 있다. 창이 앵글이 되어 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질 좋은 원두커피를 마시며 혼자 고즈넉이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 문의 : 노랑보랑(032-882-2279)
단원구 대부북동 1848-169(대부항길로 1506)
글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사진제공 조충현



노랑보랑 신소영 사장



안산품愛
안긴 대부도

역사의 속의 대부도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하다 할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의 전성기를 견인했던 것은 바로 한강유역 장악이었다.

한강을 지배하는 나라가 곧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셈이었고, 이는 곧 나라의 전성기로 이어졌다.

한강유역이 위치한 서해 경기만은 조차가 매우 커서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한강, 임진강 등 큰 하천들이 있어 갯벌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만(灣) 뒤편으로는 개경과 한양이, 앞으로는 중국이 있어 일찍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었다.
더불어 수도 방위와 피난지로서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러한 번영과 격동의 지역, 서해 경기만에 위치한 대부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대몽항쟁의 대부별초와 민족정신의 만세운동

고려 대몽 항쟁기에 대부도에도 삼별초와 같은 대부별초가 있었다. 1256년 4월 인주(현 인천시) 근처의 소래산 아래에서 대부별초는 몽골군 100여 명을 격파하였다. 한편 개경에서 몽골에 대항하는 붕기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도 주민들도 꺾기하여 몽골인 6명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국가적 위기에 대부별초와 주민들이 외적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서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현 대부동)에 사는 김윤규, 노병상, 홍원표 등 3인이 만세 시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밤 11시에 모여 포묵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튿날 4월 1일 새벽에 거리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함께 모인 주민들과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위의 3인은 각각 징역 10월의 옥고를 치렀지만 민족정신을 드높인 대부도 주민들의 의기가 전해오는 사건이다.



1

대부도, 안산시로 편재

근·현대 대부도 역시 해방과 6.25전쟁을 겪었고, 이후 행정구역 상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3년 영종도, 영흥면 등과 함께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1993년 인천이 광역시로 재편되고 연안 섬 지역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1994년 12월 옹진군 대부면은 안산시로 편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역사 속 대부도가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을지라도 국가적 위기상황에 지역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족정신 및 애국심은 현재도 본받고 이어나갈 귀중한 정신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

글 박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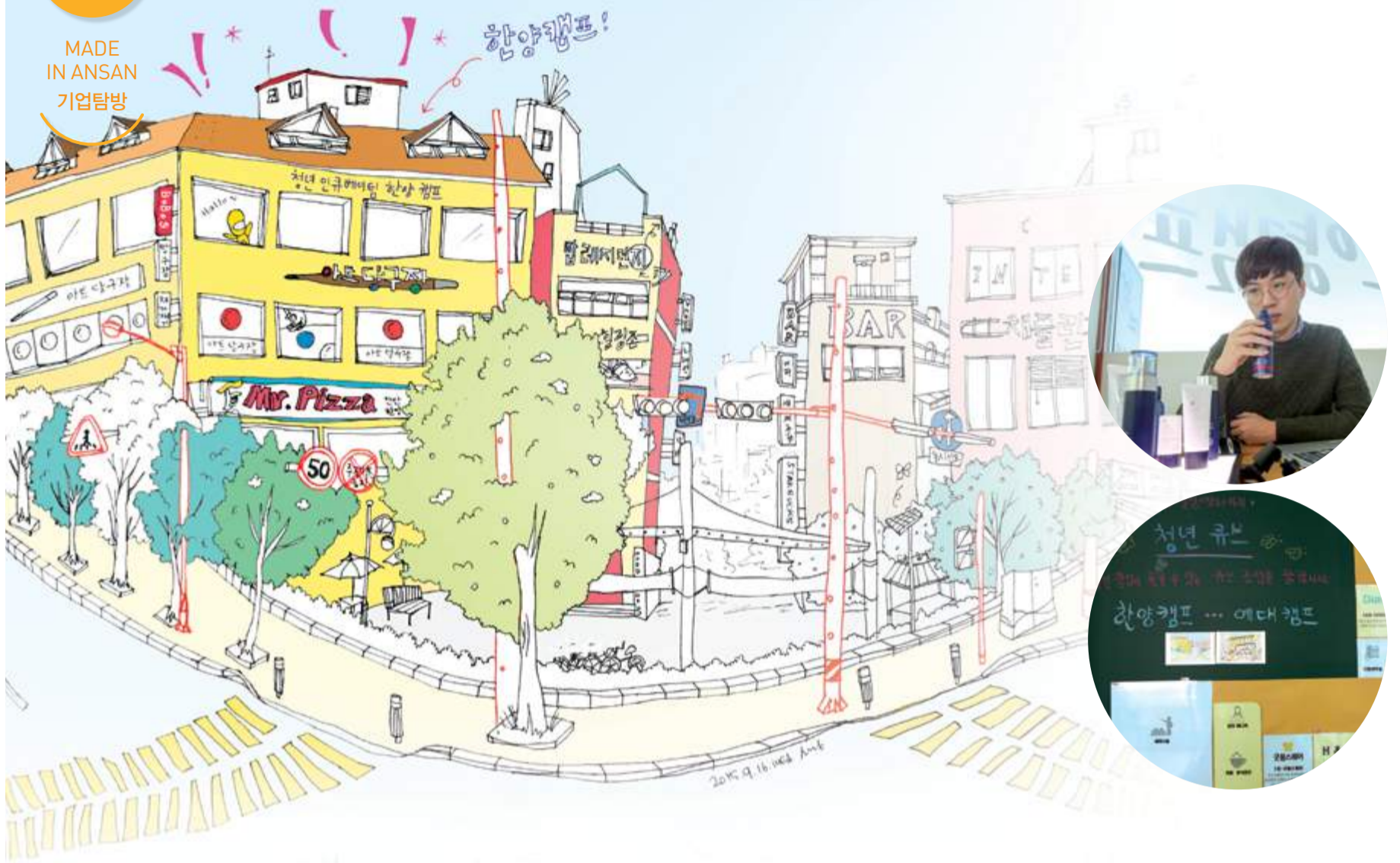


3

- 1. 대부도 고지도
- 2. 3.1운동독립만세기념비
- 3. 송덕비군

다음 여행지 _ 풍요롭고 다채로운 자연이 주는 선물, 천일염 <동주염전을 찾아서>

MADE
IN ANSAN
기업탐방



한양캠프, 도전과 열정의 ‘코스맨틱’ (cosMantic)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화장품 큐레이팅 서비스

코스맨틱의 어플리케이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사3동 한양타운에 자리한 ‘청년큐브 한양캠프’ 입주팀 <코스맨틱>을 찾았다. 한양캠프에는 10팀이 입주해 있으며 7팀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들이다. 한양대 입주팀은 게임과 앱 개발 등 IT분야의 콘텐츠로 작년 8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LINC 사업단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청년큐브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중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코스맨틱>의 박윤성 대표(경제학과 4학년, 26세)를 만나 이들의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 대표는 “안산시와 한양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교 정문 앞의 전방 좋은 방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현실이 꿈만 같다.”며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기조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준 안산시,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는 한양대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행운에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스맨틱>은 Cosmetic과 Man의 합성어로 남성 뷰티·미용제품 추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이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남성화장품 성장률이 연평균 10%에 육박하고 있지만 커져가는 트렌드에 비해 정보와 커뮤니티 공간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해 남성 뷰티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다.

2012년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던 박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뒤 한양대 창업서포터즈 1기로 활동했다. 미래 창조과학부 주관 창업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작년 5월에 박채운 공동대표와 뜻을 같이하며 팀을 결성했다.

<코스맨틱>은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남성전문 뷰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중 제품의 정보(가격, 성분 등)와 소비자의 정보를 연결시켜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추천과 치료 영역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2천여 제품의 데이터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다. Q&A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주며 남성들이 뷰티에 대해 자유롭

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앱 매거진 형식으로 브랜드별 제품 분석과 신제품 정보까지 안내하는 남성들을 위한 종합 잡지의 형태로 나아가고자 한다.

박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을 전공한 8명의 팀원들과 1년여 동안 성분분석,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개발 등에 매달리면서 도전정신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결과물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성 뷰티, 남성 화장품’하면 ‘코스맨틱’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특정 키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도전했다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웃었다.

한양캠프 매니저 정하니 씨는 “한양대 팀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에요. 한 팀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놀랍기도 해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참 좋아요. 아직 창업 초기단계라 사업화하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자들을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글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 문의 : 코스맨틱(010-6855-5085)
상록구 한양대학교로 60(사동) 4층





바다에서 순수세계를 만나다 정문규미술관 기획초대전, ‘봄·조각·향기 34人 조각展’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정문규미술관은 봄을 닮은 생동감 있는 조각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봄 조각 향기’를 주제로 한 기획초대전으로, 한때 이탈리아에서 조각 작업에 몰두했던 ‘마르텔로(Martelo) 조각회’ 34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마르텔로(Martelo) 조각회는 대리석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카라라(Carrara) 국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 조각가들이 결성한 단체로 1996년 ‘재 이태리 조각회展’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시간을 꾸준히 활동하며 마르텔로 조각회만의 조각적 색채를 만들어가고 있다.

썩달막한 5등신 몸매에 넘적한 얼굴, 낮은 콧대와 짙은 눈의 여인이 첼로를 켜고 있는 작품 앞에서 정종산 실장은 조각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동우 조각가는 농대에 다니던 시절 명동의 한 화랑에 전시된 권진규(1922 ~ 1973)의 테라코타 조각에 매료돼 대학을 그만두고 그의 문하로 들어가 스승의 마지막 2년을 수발하며 조각을 배웠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파리를 거쳐 이탈리아 카라라에서 유학하며 가장 우리다운 조각을 쫓아온 김동우의 작품에선 어머니의 냄새가 난다.

한국인의 미적 정서를 담아내기로 유명한 김동우의 사암작품 <첼로 연주하는 여인>에서부터 강인한 정신적 세계를 보여주는 김창곤의 화강암작품 <힘찬 영혼2>, 인간·우주·자연을 주제로 빛과 대리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박헌열의 대리석작품 <숲>, 인간적 삶에 대한 은유적 언어를 보여주는 이용철의 브론즈작품 <그 후 100년 - 우주>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신앙적 소재로 풀어내는 심인자의 평면작품 <영혼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의미와 삶 그리고 우주에 대한 수준 높은 순수 조각의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현실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유토피아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고재춘의 <American Dream3>와 한국여성의 정서와 미감을 한국적 재료로 만들어내는 안시현의 <달의 문>, 공간과 물체의 교감을 통해 공간의 生·動을 만들어 내는 조병섭의 <형>까지 개성 강한 작품들도 함께한다.

박헌열의 빼얀 대리석작품 <숲> 앞에서 관람객이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 목이 긴 여성의 상반신에 붙은 제목 <숲>의 의미를 찾던 이다복 씨(부천, 55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여인의 목선 뒤 조명이 비추진 부분에 ‘숲’이 있었네요. 돌로 이런 조각을 하다니 놀라워요.”라며 “직장에 다니면서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둘레길을 찾아다니며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풍도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배 시간을 놓쳐 방아머리 선착장의 안내 창구에서 근방의 미술관을 물어 찾아왔어요. 공원에 있는 조각 작품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는데, 이 조각품들은 차원이 다르네요. 작가의 혼이 느껴지는 작품을 보고 있으니 고귀한 세계로 안내받는 기분”이라고 했다.

나한균의 비너스 시리즈 <화려한 봄날>과 <기쁜 추억>도 유쾌하다. 새하얀 대리석은 석고로 빛은 비너스보다 투명해서 더 순수해 보이고, 바람에 날리는 스커트 자락을 부여잡은 마릴린 먼로의 포즈를 취한 비너스는 뚱뚱해서 귀엽다.

‘봄·조각·향기 34人 조각展’은 5월 10일(화)까지 전시한다. 정문규미술관은 조각전시 외에 5월에는 인사동 ‘미술세계’ 신예작가의 영상·평면 작품을, 7월에는 누드작가 초대전, 9월에는 우리나라 추상화가 1세대인故 김영주 화백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 정문규미술관(032-881-2753, <http://www.chungmuseum.org>)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1. 김동우, 첼로 연주하는 여인
2. 나한균, 비너스 - 외출
3. 나한균, 비너스 - 화려한 봄날
4. 한진섭, 꿈을 찾아서



미국유명합창단 초청공연 Dolce Canto & Ansan City Choir

오는 4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안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안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미국유명합창단 초청공연 Dolce Canto & Ansan City Choir’을 오는 4월 5일(화)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2016년 봄을 맞이하여 한국을 찾은 돌체칸토합창단이 안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전통음악부터 록(Rock), 뮤지컬, 흑인 영가 그리고 민요에 까지 합창의 다양한 장르를 들려줄 것이다. 돌체칸토의 합창으로 시작하는 1부는 ‘Unclouded Day’, ‘Down in the River to Pray, I’m Going Home’ 등의 미국 민요와 성가곡을 연주하며, 전통 민속악기로 구성된 블루그래스(Bluegrass) 밴드의 연주와 클래식합창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The World Beloved: A Bluegrass Mass’ 라는 작품을 연주할 계획이다.

2부는 안산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흑인영가 ‘Way Over in Beulah Lan’과 록(Rock)음악인 ‘Queen Medley’, 뮤지컬 메들리 ‘Circle of Life’를 안무와 함께 화려한 무대로 준비한다. 돌체칸토와 안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Rorando Coeli, The Stars Still Shine, Up above My

Head, Tshotsholoza(아프리카 민요)등을 연주하며 합창을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돌체칸토합창단(Dolce Canto)은 Peter Park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 전공자와 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 등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합창단이다. 2010년 시애틀에서 이루어진 미국 북서부지역 ACDA에서 공연하였으며, 201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를 하였다. 또한, 2014년 Dale Warland Singers Commission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두 번째 음반 “A Joyful Season”을 발표하였다.

안산시립합창단의 특별기획공연 ‘미국유명합창단 초청공연 Dolce Canto & Ansan City Choir’의 관람료는 특별가 전석 5,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립합창단(031-481-4098) 및 안산문화예술의전당(www.ansanart.com)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의 : 문화예술과(031-481-2064)



Dolce Canto & Ansan City Choir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4월)



416 추념음악회
REMEMBER FOREVER

공연일정 2016년 4월 15일(금) 7:30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강무림(테너), 신지화(소프라노), 신동호(테너),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김희송) 외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무료(전석 초대)
신청방법 전화예약(안산문화예술의전당 080-481-4000)
공연내용 “2016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REMEMBER FOREVER”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에 REMEMBER FOREVER를 부제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뜻을 모아 416추념음악회를 통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
귄터그라스 특별전

공연일정 2016년 4월 8일(금) ~ 5월 8일(일)
공연장소 단원미술관 1관
관람료 일반 4,000 / 안산시민 2,000원
전시내용 영화 <양철북>의 원작 소설가로 잘 알려진 귄터그라스는 ‘현대 독일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큼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위대한 시민이었다. 이번 전시는 그라스의 판화작품 80여 점과 10여 점의 조각작품 외에도 자필시 원고와 ‘양철북’ 포스터 등 귄터그라스의 생애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1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공연일정 2016년 4월 26일(화) 11A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출연 바이올린 김재영, 피아노 양지선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15,000원
공연내용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음색의 소유자” 섬세한 음색과 신중한 내면적 감성에 밀바탕을 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은 현재 2007년 결성한 노부스 콰르텟의 리더로 활동하며 실내악 세계 최고 권위의 독일 ARD국제음악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준우승, 2014년 국제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고 있다.

사진 찍기 좋은 숲 ;
노적봉 공원 소나무 군락

삼릉 소나무 숲 부럽지 않은 명소

경주 배동 삼릉 소나무 숲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다녀 온 사람들에 따르면 살짝 안개가 머물러 있을 때 찍으면 더 없이 질감이 살아난다고 한다.
소나무 작가로 유명한 배병우 씨가 삼릉에서 찍은 작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소나무는 독야청청 홀로 있어도 그 기개가 사람을 압도하는바 있지만 군락을 이루어 숲이 되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다르고 굵기와 높이도 제각각이지만 서로 지키고 보듬으며 든직한 숲을 이룬다.
그래서일까, 시인 정희성은 '숲'이라는 시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한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있더군.
제가꿈 서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안산에는 많은 숲이 있다.
나무 몇 그루와 꽃으로만 만들어진 숲도 있고
큰 산자락을 타고 마을로 내려와 기꺼이 자신의 잔등을 사람들에게 내민 자연형 숲도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숲이 숨기고 있는 수 천 수 만 형상의 내면이다.
그러니 그 숲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찾아내는 것이 숲에 드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숲에 간다면 분명 사각 프레임에 가둘 대상을 매의 눈으로 사냥할 것이다.
대상은 풍경, 나무, 꽃, 곤충, 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소나무를 포획하고 싶다면 노적봉 공원으로 가기를 권한다.
삼릉의 소나무 숲만큼이야 못하지만 나름 쓸쓸한 프레임 사냥이 될 것이다.





노적봉 공원에 있는 소나무 군락은

350년이 넘는 보호수도 있어 안산시가 울타리를 치고 잘 관리하고 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오른쪽 방향 산책길로 약 600여 미터 정도 걷다보면 왼편에 있다.

나무들이 뻣뻣하지 않아 울창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여백이 마치 서로를 향한 배려처럼 느껴진다.

정희성 시인이 이곳에 왔다면 제가꿈 서있으되 적당한 사이를 두는 숲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다.

군락이 서쪽면에 있어 해는 일출이 시작되고도 한참 후에야 고개를 내미니 아침 출사라면 좀 늦게 출발해도 된다.

안개 낀 날에 카메라를 들고 나간다면 분명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숲은 언제나 발견하는 자의 몫이다.

다시 봄이 왔다.

숲의 놀라운 매력을 찾아 숲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16 안산의 책’ 「나쁜 어린이표」의 황선미 작가를 만나다



황선미 작가(왼쪽)와 유명인 작가가 다정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범시민 독서운동인 ‘2016 안산의 책’을 선정해 1년간 안산시 공공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지난 3월 4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인 황선미 작가는 제자인 유명인 작가와 함께 선포식에 참여해 안산 시민과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일기 감추는 날」, 「초대받은 아이들」 등 섬세한 심리 묘사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황선미 작가를 만났다.

Q.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를 주제로 「나쁜 어린이표」가 올해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소감은?

A. 우선 감사하고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 책이 1999년 12월에 나왔으니 오래된 책이라는 인상이었을 텐데도 선정되어 감사하고, 책의 생명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으니 경이롭달 수밖에요.

Q. 「나쁜 어린이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소통입니다. 어떤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학교에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 스티커 제도가 그동안 일방적인 것이었던 만큼 이것의 대상자인 아이 심정을 들여다보고자 한 작품입니다.

Q. 「마당을 나온 암탉」이 전 국민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으로 판권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책과 영화가 주는 감동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까?

A. 그것을 작가가 규정할 수는 없지요. 책이 영화로 변주되었던 과정과 독자가 이것들을 접하는 과정은 일치하지 않아요. 고학년 대상의 원작이 맨 나중에 영화가 되었는데, 아이가 문자를 알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분량이 있는 책을 읽게 되는 셈이니까요. 무엇을 먼저 접하는가보다 원작과 파생된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이 더 중요하겠지요.

Q.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 ‘임싹’이 황 작가 자신이 아닐까, 라고 짐작해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작가의 꿈을 키워오셨나요?

A.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1970년대에는 아이들이 교과서 외의 책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책이 너무나 소중하고 보물 같았지요. 아주 즐거운 기회였습니다.

Q. 유명인 작가는 황 교수님의 수업에서 ‘동화는 소설과 시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말에 ‘동화’에 대해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화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A. 동화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주제가 시처럼 어떤 정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화는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이고 어린 시절의 정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동심을 간직한 존재라서 보다 이 문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Q. 삶의 본질적 문제를 어른과 아이 모두가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 작가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A. 이야기는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나를 떠난 이야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Q. 독자와 안산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안산의 어른과 아이들이 의미 있는 독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제 작품이 그 중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쁜 어린이 표」는 나와 타인의 경우를 이해하기 바라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혹시라도 오랫동안 감춰둔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이 그 오래된 딱지를 다독이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 읽는 안산 / 3월 세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나만의 인생철학**



어린이 인생 사전

저자 박성철 / 출판사 다산어린이

많은 선생님들은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막 10대에 들어서서 ‘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내 아이의 마음에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와 ‘소중한 가치관’이라는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책, 바로 「어린이 인생 사전」입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저자 공선옥 / 출판사 창비

청소년들을 위한 공선옥의 소설집 「나는 죽지 않겠다」. 중견 소설가 공선옥이 들려주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각종 규제와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써온 단편들을 모아 엮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왔던 공선옥의 작품세계가 청소년 소설에서도 그 따뜻함을 보여준다. 그중 단편 ‘나는 죽지 않겠다’는 급우들이 모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맡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주고만 여고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여고생은 자살하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진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자 헤민 스님 / 출판사 쌤앤파커스

이 책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파워 트위터안으로 불리는 저자의 지혜로운 대답을 담고 있다. 배우자, 자녀,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나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잠깐의 뒤통수에 열등감으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과 열정을 찾을 것,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쓰다듬다 그리고 기억하다

세월호 2주기를 준비하는 인형워크숍 열려



순식간에 찾아온 봄, 어느덧 세월호 참사 2주기도 성큼 다가왔다. 마치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한데, 벌써 4월 16일의 벚꽃을 두 해째 보게 될 것 같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3월, 사동 의류단지 안에 있는 나무움직임연구소를 찾았다. 건물 한쪽 벽에 걸린 소박한 노란리본 외에는 특별할 것 없던 상가건물 2층에서 416건기 행사 때 사용될 대형인형을 만드는 작업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문지로 틀을 만든 1미터 크기의 대형인형 얼굴은 9명의 세월호 미수습자를 상징했다. 인형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미수습자들을 생각하며 기원하던 이미지들이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쪽 벽엔 시민들이 연필로 스케치한 드로잉과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 보듬고 싶은 마음들이 푹푹 눌러 쓴 연필자국을 따라 아프게 이어졌다. 대형인형을 만드는 작업은 신문을 잘라 붙여 만든 틀 위에 신문지와 소포지 8겹을 번갈아 붙이는 작업으로 진행됐다. 한쪽에서 신문지와 소포지에 물풀을 바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모양 틀에 신문지와 소포지 여러 겹을 꼼꼼히 붙였다. 참가자들은 물풀이 묻어있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인형의 얼굴과 손을 어루만졌다. 꽤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작업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 생각보다 금세 끝나, 어린이와 성인남자 2명의 얼굴이 완성됐다. 인형의 얼굴 곡선마다 참여자들이 마음으로 기원하던 소망들이 한 겹 한 겹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이번 워크숍에는 가족단위 참여자들, 마을공동체 사람들, 경기지역에서 개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했다. 둘러앉아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많은 시민들 마음 속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용인에서 왔다는 한 여성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와 관련된 정확한 뉴스가 제대로 전달돼 크고 작은 오해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전우란 학생은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인형을 많이 만들어서 당일 날 시민들과 행진할 생각을 하니 기대 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 416건기 ‘진실을 향한 걸음’은 4,160명의 시민들이 ‘304인의 탈과 꽃 만장, 9개의 대형인형’을 들고 함께 행진하며 진행된다. 작품을 만드는 예술작업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소한 일상의 수다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확인하며 맺힌 것들을 함께 풀어내는 시간도 가진다. 그리고 이 34일간의 워크숍 과정은 4월 16일 걸기행진과 공연으로 이어진다. 304개의 탈은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징하고, 304개의 꽃 만장은 304개의 죽음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공연을 통해 만나게 되는 9개의 대형인형은 잠에서 깨어 진실의



승리로 부활한다는 염원을 담는다. 참사 2주기를 준비하는 3가지 시민참여 제작워크숍은 4월 9일까지 나무움직임연구소와 416가족공방 및 전국각지에서 진행된다. 또, 2주기 당일 진행되는 416건기대회 행진에 참여할 4,160명의 시민도 현재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홈페이지 _ www.416ansan.com

글·사진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배움의 경계를 허물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삼삼오오 학습마실 길거리 학습관 개설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지난해 9월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나 3명 이상이 모이면 강좌가 열리는 길거리 학습관을 안산시 곳곳에 개소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록구 수암동 ‘카페 드코코’를 1호점으로 개소한 후 상록구 7개소, 단원구 3개소를 개소해 총 15개 강좌를 열어 운영하고 올해는 ‘카페 소콜라 마루’를 시작으로 17개소를 더 개소해 총 20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테이프를 끊은 ‘카페 드코코’는 안산동역사와 수납정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길거리 학습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네 주민들이 학습과 친목을 함께 나누는 아지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12호점 길거리 학습관으로 개소한 ‘지나C 커피숍’은 4월부터 영어 기초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나C 커피숍’은 그동안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와 거리가 멀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에 여의치 않았는데 이번에 길거리 학습관으로 지정, 개소되는 것이 더 반겨지는 장소다. 12호점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평생학습관 하모니카 수강생들의 축하공연과 그간의 경과보고, 전통매듭 체험이 이어졌다. 안산시관계자는 “부곡동은 안산에서도 전통이 깊은 동네에

속한다. 길거리 학습관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삭막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길거리 학습관이 안산시평생학습관의 분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일상학습을 위한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길거리 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안산시평생학습관에 요청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선정 후 강사를 지원해 준다. 프로그램 이용 시 수강료는 무료지만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학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카페, 학원, 소규모 상점 등이 삼삼오오 학습마실 길거리 학습관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학습 모임에 본인의 시설을 지정된 시간(시설주 지정시간에 한함)에 개방하고 해당시설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설을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는 길거리 학습관 현판 부여, 안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선정시설 소개, 우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학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 (070-4492-1572)

글·사진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net



안산 와~스타디움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G조 7차전 한국vs레바논 경기로 축구팬 이목 집중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코리아, 오~ 필승코리아, 오오 오오 오’
 지난 3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G조 7차전에 3만 5백여 관중이 모였다. 와~스타디움에 오지 못한 전국의 축구 팬들은 실시간 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국가대표팀과 레바논 팀과의 경기를 지켜봤다. 와~스타디움에 모인 축구팬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국가대표팀은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며 계속해서 레바논 골문을 위협했지만 결정적인 골한 방은 후반전이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터지지 않았다. 후반 25분에 교체 투입된 이정협 선수는 후반 47분 기성용 선수가 골대 왼쪽 측면에서 연결해준 볼을 땅 볼로 차 넣어 천금같은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정협 선수의 결승골로 한국은 이날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해 역대 최다 기록인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을 세웠다. 국가대표팀은 G조 1위로서 이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번 레바논전은 ‘한국축구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봄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다채로운 경품행사도 함께 열렸다. 그에 맞춘 대표 팀의 새로운 유니폼 30벌과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공 100개가 경품으로 마련돼 추첨을 통해 제공됐다. 이외에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응원 티셔츠가 경품으로 준비되어 즐거움을 더해줬다.

또한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인기 걸 그룹 ‘러블리즈’와 래퍼 ‘트루디’의 미니콘서트가 펼쳐져 행사의 끝을 짚지만 강렬하게 장식했다.

고잔동에서 경기를 보러온 김수영(20세) 씨는 중학생 시절 박지성 선수의 팬이 되면서 축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 국제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모습에서 도전정신을 배웠고 팀워크를 이뤄 절묘하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골인으로 연결시키는 선수들의 경기에선 협동심을 배웠다고 했다. 오늘 경기에선 우리 대표 팀에 비해 순위가 한참 밀리는 레바논 팀의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비하다가 어느 순간 공격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의 경기가 나름 흥미로웠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고장 안산에서 월드컵 예선전이 열릴 만큼 훌륭한 경기장이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봄이 찾아왔나 봐요 와동 꽃 양묘장에 팬지·비올라 등 봄꽃 가득한 와동 꽃 양묘장 2016 어린이 꽃 체험!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불리는 팬지, 3~5cm 작은 꽃이 피는 비올라, 민들레와 비슷한 데이지 등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린 와동 양묘장에 사람 꽃인 어린이집 원아 20명이 찾아와 꽃 체험을 했다. 자연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이 자신들처럼 예쁜 꽃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봄 인사를 전했다. 양묘장에는 안산의 곳곳에 심어져 아름답게 거리경관을 꾸며줄 꽃들이 작은 모종형태로 들어와 겨울을 난다. 찬 기운이 채가지지 않은 이른 봄 강인한 꽃을 피워 안산의 거리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을 채비를 갖춘다. 양묘장에서는 매년 봄·가을,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어린이 꽃 체험교실이 열린다. 20만 송이가 넘는 꽃들이 피어 장관을 이룬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을 순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어린이들은 꽃의 이름과 특징, 꽃이 피는 시기가 꽃마다 다를까 배우고, 생명은 아름다다는 것을 느낀다. 생태해설 선생님으로부터 꽃 한 송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과 꽃이 뿌리를 내리는 흙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김선주 생태해설사는 “아이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 꽃 체험 프로그램은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자연을 알아가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화분에 흙을 담고, 팬지, 비올라, 데이지 등 예쁜 꽃들을 직접 심고 나무 조각에 그림 그린 것을 화분에 붙여 꾸몄다. 꽃 손수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머리에는 다양한 식물 핀을 꽂아보는 체험도 했다. 개나리꽃을 제일 좋아한다는 김영주(7세, 사2동) 어린이는 “예쁜 꽃을 많이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저희가 심은 꽃이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와동 꽃 양묘장은 2003년 조성됐다. 비닐하우스 5개동 3,280㎡에서 어린 모종 형태로 들여온 꽃들을 키워 안산의 25개동 주민센터, 와~스타디움, 문화광장, 거리화단과 교통섬 가꾸는 데 보낸다. 매해 3·6·9월 계절별로 공급하는 꽃은 24만 송이씩 총 75만여 송이에 이른다. 와동 꽃 양묘장 강병준 담당자는 “어린 모종을 들여 와 꽃이 필 때까지 돌보고 내보내는 일은 무척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일이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꽃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꽃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꽃에 대해 잘 알아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안산시 녹지과(031-481-2327), 꽃 양묘장(단원구 순환로 416(와동))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엄마, **삭월세** 아직 송금안하셨죠? 주인아줌마한테 전화 왔었어요. 오후 01:42

아침, 깜빡했다. 요즘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나마 돈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 오는 거 같으니~ 이따 오후에 꼭 송금할게. 오후 01:45

할머니는 좀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조금만 더 애써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갚아드릴게요. 오후 01:48

할머니는 많이 좋아하셨어. 그나마 우리 딸~ 말이라도 고맙다. 어쨌든 대학생활 마무리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내년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딛어야 하느니만큼 열심히 준비해야지. 오후 01:53

그럼요. 다음 달에 있을 자격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전에 집에 갔을 때 전공서적을 놓고 왔는데 학교 근처에 올 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오후 01:55

글쎄~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삼촌**이 낼 오신다고 했으니 그 편에 보낼게. 오후 01:57

아~ 잘됐네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 수업 들어 가야해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오후 01:57

그래. 밥 잘 챙겨먹고 다녀. 오후 01:58

삭월세는 '사글세'라고 써야 맞습니다.

'사글세'는 '월세를 받고 빌려 주는 방' 또는 '월세를 주고 빌려 쓰는 방'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요새는 전세보다 사글세가 더 잘나가는 편이다. / 사글세로 방 하나를 얻었다.

삼촌은 '삼촌'라고 써야 맞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삼촌은 골동품 수집가이다. / 삼촌이 용돈을 두둑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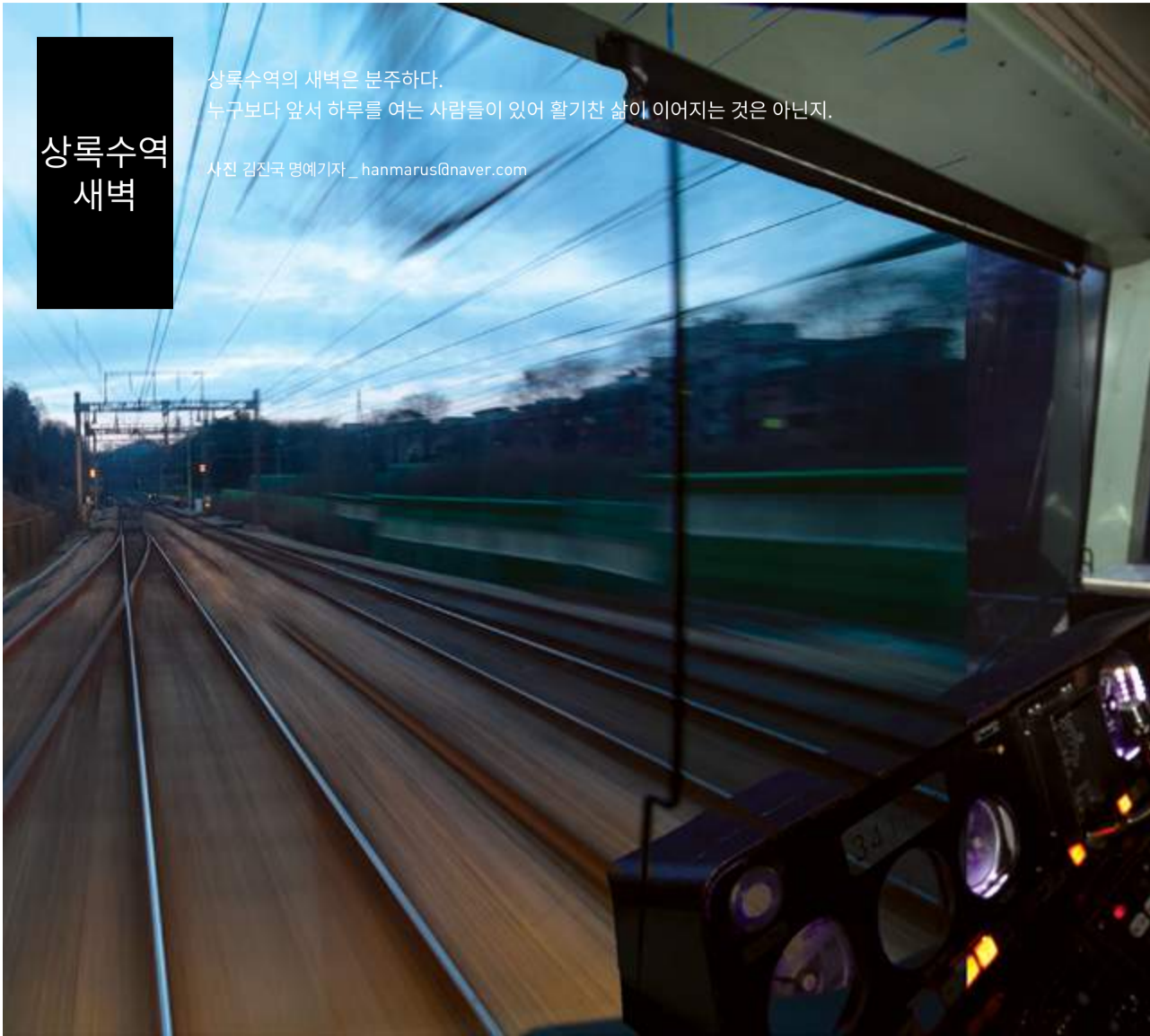
김은미 명예기자_ iam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 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는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홍보관실(031-481-204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역 새벽

상록수역의 새벽은 분주하다.
누구보다 앞서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 활기찬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월드컵
예선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레바논전.
1:0 승리.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 손색없는 경기였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 봄이 오고 있습니다 ”



봄이 오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찬바람으로 인해 뽁뽁이(에어캡, Air-Cap)로 문풍지처럼 들어오는 바람을 막고, 옷깃을 더욱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어둠이 오기 전에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해 겨울이 이제는 간혹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햇살로 봄이 움을 느낍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도 깜깜했던 밖은 이제 환해지고 있고, 저녁 6시만 되어도 깜깜해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는데 이젠 대낮처럼 여전히 밝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어쩔이리 정확한지. 3월의 달력을 넘기자마자 봄이 왔음을 정말 빨리도 알게 해 줍니다.

입학식, 개학식!

아이들은 분주하게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 친구들, 선생님. 맘도 분주하고, 행동도 바쁩니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니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 'Spring'이라고 하나요? 우리 아이의 입학식이 떠오릅니다. 그땐 나도 입학하는 학생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해야 할 텐데...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과 불안, 조바심. 부모는 아이와 같은 나이를 먹는다죠? 유치원 땐 유치원 연령, 초등학교 땐 초등학교 연령이 되어 아이와 자란다지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의 두터운 옷을 벗고 좀 가벼운 옷차림을 하듯이 생각도, 행동도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한 학년씩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듯 그렇게 적응해 가며 부모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척척 하듯이 이제는 믿고 맡기며 새 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죠? 겨우내 잠잠했던 나무들도 싹을 틔우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는 봄은 모든 것의 첫 출발이라 생각됩니다. 봄의 따뜻한 온기처럼, 스프링처럼 툭툭 튀는 청량함만큼 40대 중반을 맞이하는 나도 다시 새로움을 계획할까 합니다. 사춘기처럼 가슴 떨리고, 긴장감은 없겠지만, 하나씩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목록을 작성해서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그래, 잘했어.'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줄 수 있게 말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움츠리지 말고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시며 창문을 활짝 열라고 봄이 노크합니다.

박정화(상록구 월피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f@iansan.net

시민무료법률상담 이용안내

이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이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

- 부동산 매매, 임대차, 채권·채무, 임금 및 노사 관련
- 인·허가 등 행정민원 및 전반적인 생활법률 관련
- 가사, 민·형사 관련

이용방법

장 소 : 안산시청 민원동 1층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일시 : 주 간 _ 월 ~ 금(주 5회) 14:00 ~ 16:00(2시간)
 야 간 _ 월요일(주 1회) 19:00 ~ 21:00(2시간)
 상담방법 : 상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상담
 문 의 처 : 031-481-2699

상 담 관

경기중앙지방법변호사회 안산지회 : 월, 화, 금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 : 수
 안산시 법률자문관 : 목

문 의 처

안산시 기획법무과 ☎ 031-481-2830



건강 UP 야간 운동교실 START!



만성질환예방 및 비만관리, 4월부터 지역주민 함께...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건강UP 야간운동교실'을 4월 1일 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공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야간운동교실은 셋터공원, 와동체육공원, 둔배미공원, 민속공원, 화정천변, 중앙공원, 달미공원, 별빛광장, 관산운동장, 문화광장에서 주 2회 생활체육회 전문강사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현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장소에 따라 운동하는 요일 및 시간이 다르므로 단원보건소 운동처방실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481-3493(단원보건소 운동처방실)로 상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www.ccrs.or.kr

대학생·청년 햇살론

당신의 미래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드립니다!

구분	생활자금대출	고급리진환대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인 대학생 - 학업연계 학습자는 학년층 30% 및 나이 기준 적용 ○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29세이하 청년층 - 균등지급 가능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은 생활자금대출과 동일하며 ○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이상의 대출을 연이율 1% 상환유인 대학생, 청년층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원금 : 최대 800만원(연간한도 300만원) ○ 상환기간 : 최대 5년 (가사기간 4년) ○ 대출이율 : 연 5.4% 수준 ○ 보증료율 : 연 0.1% ○ 상환방법 : (거치후)평균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 보증료는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 [취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원금 : 최대 1,000만원 ○ 상환기간 : 최대 7년 (가사기간 6년) ○ 대출이율 : 연 5.4% 수준 ○ 보증료율 : 연 0.1% ○ 상환방법 : (거치후)평균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 보증료는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 [취급은행]
취급은행	* 생활자금대출과 고급리진환대출 1인 통합한도 1,000만원 서울은행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소망대우카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사이버)방 포함하여 보증지원 신청 ○ 보증지원 승인 후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상담센터 1600-5500
인터넷 신청 cyber.ccrs.or.kr

안산시 도서관 4월 도서관주간 및 책의 날 기념행사 안내

안산시 도서관에서는 4월 도서관주간(4. 12.~4. 18.)과 세계 책의 날(4. 23.)을 맞아 인문학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주간이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18일을 도서관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세계 책의 날은?
유네스코에서 1995년 독서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중양도서관	행사명	일시	진행	주요내용
중양도서관	음악으로 감성을 말하다	4. 12. (화) 19:00-20:30	배순탁 (음악작가)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배순탁 음악작가의 영화음악 강연
	신과 함께! 우리 전통신화 이야기	4. 23. (토) 14:00-15:30	주호민 (웹툰작가)	(신과 함께), (우한동학)의 웹툰작가 주호민의 한국 전통신화 특강
	온 가족 놀이마당극 활활~ 간대	4. 17. (일) 14:00-15:00	극단 마루한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한 놀이 마당극
김갈도서관	행사명	일시	진행	주요내용
김갈도서관	아간인문학 '유지철 Talk'	4. 7.-4. 28. (목, 4회), 19:00-21:00	이동섭 (인문예술학자)	유지철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
관산도서관	행사명	일시	진행	주요내용
관산도서관	안소영 작가와의 만남	4. 19. (화) 19:00-21:00	안소영 ('시인동주' 저자)	'시인동주'의 저자 안소영 작가와 함께 운동주의 삶과 시에 대해 알아보기
성포도서관	행사명	일시	진행	주요내용
성포도서관	여성을 움직이는 순겨진 여행지	4. 16. (토) 15:00	이종원 (한국여행작가 협회장)	여행인문학 특강으로 여성을 움직이는 순겨진 여행지 알아보기

2016년 4월 주말 영화상영

|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

		문화행사 책은 나의 좋은 친구 오후 3시~		
4/02(토)	4/09(토)	4/16(토)	4/23(토)	4/30(토)

장 소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상록어린이도서관 ☎ 481-3744,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

				
4/02(토)	4/09(토)	4/16(토)	4/23(토)	4/30(토)

장 소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어울림터))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단원어린이도서관 ☎ 481-3856,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숙의 효능**

부인병 치료 효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인 숙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부인병 증상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장 기능 강화 효과
숙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히 하여 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숙 고르는 방법**

- 짙은 색이 아닌 옅은 색의 숙이 맛이 좋습니다.
- 잎을 만져보았을 때 부드러운 숙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맛있는 숙 오래 보관하는 방법**

- 이른 봄에 수확한 어린 숙을 삶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다음 해 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 말려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약간 남아있도록 말린 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긋한 봄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숙**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